

### 공기총 피살 초등생 교통사고 후

# “멀쩡하게 일어나 걸어갔다”

#### 목격자 잇단 진술... 경찰 초동 수사 엉망

#### 또다른 교통사고 괴담 난무 시민들 불안

‘광주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여론의 비판대에 올랐다.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와 함께 피의자의 진술 반복으로 수사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각종 의혹과 루머까지 난무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청은 14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실종아동 수사 결과’ 자료에서 J(10·초등학교 4년)군이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 도로에서 이모(48)씨의 승합차에 치어 차에 태워진 뒤 담양군 남면 저수지 주변에서 이씨의 공기총에 의해 살해되고 인근 계곡에 유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J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유기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이 공기총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특히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펼쳐오다 시신 유기장소를 찾지 못하고 허둥했다.

경찰은 담양 담양군 창평면 일대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이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반복하자 변경된 장소로 수색대를 급파, J군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J군의 부모로

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뒤 집 주변과 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했지만 목격자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J군이 부모의 꾸지람을 듣고 단순 가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배 전단 4천장을 만들어 현장 주변에 배포했다.

그러나 범인 검거 소식이 보도되면서 당초 경찰 발표와 달리 새로운 목격자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이날 경찰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여고생 3명을 조사한 결과 J군은 당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J군이 건널목 근처에서 승합차 범퍼에 치인 뒤 머리를 감싸쥐고 울며 일어나 상가 쪽으로 뛰어갔다”며 “그 순간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J군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가 오락가락하면서 북구 지역에는 ‘또 다른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살해됐다’는 ‘괴담’까지 나돌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건 발생 직후 자녀의 등하곳길은 물론 학원까지 배려해주고 데려오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이토록 잔인할수가...” 지난 13일 담양군 남면 저수지 인근에서 이뤄진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피의자 이모(48)씨가 당시 J(10)군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kwangju.co.kr

이씨는 북구 일곡동 M마트에서 숨진 J군 대신 재연에 나선 형사와 소품인 마네킹을 자신의 승합차에 싣는 장면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경찰이 설치한 출입통제선을 넘고 들어온 한 주민은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느냐?”라며 몸을 떨었다.

한편, J군을 실은 영구차는 이날 마지막 교차로 화교를 틀러 가족과 선생님의 슬픔을 뒤로 한 채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마지막 등곳길에는 유족 20여 명과 교장, 담양교사 등 교직원 7명이 참석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잔혹한 범행 태연하게 재연

#### 초등생 살해 현장검증... 영구차 타고 마지막 등교 ‘눈물바다’

자신의 승합차로 친 뒤 공기총을 발사해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피의자가 범행 10여 일 뒤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도 담담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북구 일곡동·담양군 남면 일대에서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모(48)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씨는 북구 일곡동 M마트 인근 앞길에서 자신

의 승합차로 광주 모 초교 4년 J(10)군을 친 뒤 차에 태우는 장면을 시작으로 공기총 살해 장면, 시신 유기 등 J군에 대한 범행을 차례로 재연했다. 이씨는 이날 하얀색 상의와 청바지 차림에 흰색 마스크와 보라색 모자를 눌러썼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물러들자 고개를 꼭 숙였다. 북부경찰 한 직원이 “사고 직후 J군을 차에 어

떻게 태웠느냐?”라고 묻자, 이씨는 답답한 자세로 현장검증에 임했다. 이어 이씨는 담양군 남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신음 중인 J군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모습도 재연했다. 이씨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는데,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라며 “J군이 심하게 다쳐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 상태로

### 계림동 역대 절도범

## 경기도서 붙잡혔다

#### 5인조 전국 돌며 빈집털이

미궁에 빠질 뻔 했던 ‘계림동 가정집 역대 현금 절도사건’(본보 3월 7일자 3면)의 주범 등이 사건 발생 석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용인경찰은 14일 광주 등 전국을 누비며 빈집을 털어온 김모(36·경기도 일산시)씨 등 3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K아파트 김모(44)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억5천여만원과 금반지 등 귀금속 30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전국을 돌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전국을 무대로 빈집을 털어온 ‘5인조 빈집털

이’로, 김씨의 집에 들어갔다 거액의 현금이 든 금고를 발견,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달아난 일당 2명을 추적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규모와 어떻게 거액이 있는 집을 골라 털었는지를 알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동부경찰은 사건발생 이틀째인 지난 3월 6일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화면을 바탕으로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며, 범행 당시 사건현장 주변의 휴대전화 통신자료 1만여건과 관내 거주 외국인, 동종 전과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30대女 살인 용의자 공개수배

#### 서부경찰, 피해자의 남편 CCTV 확보하고도 ‘미적’

광주의 한 빌라 옥상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얼굴을 확보하고도 시신제보나 범인의 자수에 의존하는 등 부실한 수사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은 아내 김모(여·34)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 류모(36)씨를 공개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하고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 공개수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8일이 넘도록 범인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둔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범인이 종적을 감추자 “자살한 것 아니냐”며 단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공개해 오히려 범인에게 도주시간만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자 비난을 면키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근로자 보조금 불법 유용

#### 한국노총 前 간부 벌금형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한국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14일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인건비 등으로 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한노총 광주본부 전 의장 정

모(61)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의 법정 진술과 노사 공동훈련 시범사업 수사보고, 보조금 집행 서류 등으로 미뤄 사문서를 위조해 형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6년 5월과 200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보조금’ 3억6천원을 광주본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7829) 김종두



#### 광양 물놀이 중학생 숨져

14일 오전 11시20분께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향동마을 앞 섬진강 하류에서 전남 물놀이 도중 실종된 양모(15·중1)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양군은 전남 오후 2시께 섬진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돼 경찰 등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동부취재본부 박영진기자 py4079@

#### “불만족” 신고했다 성매매 들롱

○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아가씨가 불친절하다’며 업소의 대문을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성매매 사실이 들롱나 업주와 함께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청은 14일 성매매 후 업소의 문을 발로 찬 최모(32)씨와 업주 지모(52)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나란히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지씨의 알선으로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불만족스럽다’며 업소의 문을 발로 찬 뒤 업소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

○최씨는 경찰에서 “6만원이나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업벌을 촉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새로운 마음으로 큰 눈동자 품어

새로운 마음으로 큰 눈동자 품어... (text continues)

새로운 마음으로 큰 눈동자 품어... (text continues)

새로운 마음으로 큰 눈동자 품어... (text continues)